

아동의 죽음인식 및 죽음 관련 경험

-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eath by Sixth Grade Children

윤현민(Hyunmin Yoon)¹⁾

박현경(Hyunkyung Park)²⁾

ABSTRACT

This survey of children'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death was conducted with 118 6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Data consisted of responses to questionnaires in three categories : (1) perceptions of death, (2) views of afterlife, and (3) death-related experiences (life, education, and media).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had negative emotions (61.8%) such as fear and anxiety about death. Children's attitudes about suicide were sympathetic (34.5%) as well as critical (53.7%).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view of afterlife. Finally, children experienced death more through mass media (TV, internet, etc.) than through life experience or death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for death education and warns of negative effects of media and games.

Key Words : 죽음인식(perception of death), 내세관(view of afterlife), 죽음 관련 경험(death-related experiences), 죽음 교육(death education).

I. 서 론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우리나라 또한 고환율, 실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잇단 집단 자살이 자주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연

합뉴스, 2009). 이들 중에는 십대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학업성적을 비관한 초등학생들의 자살도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살의 문제는 1998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대두되었다. 이후 2008년 6월

¹⁾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²⁾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Corresponding Author : Hyunmin Yo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 hmyoon21@nate.com

건강 자료(Health Data)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십만 명당 21.5명으로(OECD 평균 11.2명) 10년째 자살률 1위 국가이다. 특히 40·50대의 주요 사망원인이 암인 것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2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 2008). 국가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10~14세의 1.5명(십만 명당), 15~19세의 사망이 7.9명(십만 명당)이 자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과 그로 인한 모방 자살 현상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메디컬투데이, 2009). 이외에 연쇄살인범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정신 병리를 가진 범죄자들의 살인행위가 이전보다 강력하고 빈번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문화방송, 2009). 뿐만 아니라 종교·정치적 목표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각종 테러행위(연합뉴스 2008년)로 인한 희생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나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조선일보 2009년). 이와 같은 각종 죽음 현상과 관련된 사실들은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 여과되지 않고 전달되고 있다. 심지어 시청률과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선정성이 부각되거나 추측·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최용준, 2003; 김상균, 1998). 매스미디어를 통한 죽음 보도는 아주 어린 아동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문제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Buckingham(2000)은 TV나 인터넷 등 각종 전자매체로부터 아동의 일상생활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Strasburger와 Wilson(2002)은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주요한 미디어 수용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아동들이 죽음에 대한 학습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하게 되는데 부정적

인 메시지가, 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미디어의 내용들이 내면화되고,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Wass, 1983). 여과 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들이 TV, 게임, 만화영화, 인터넷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죽음을 접하게 되면 오락성, 폭력성과 선정과 더불어 죽음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이영숙, 2006). 이로 인해 아동기에 잘못된 형성된 죽음 개념과 죽음 불안은 성인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영란, 2007).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아동들은 왜곡된 죽음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은 자살사건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copycat suicide)’을 촉발할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을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라 칭하며 연구하기 시작하였다(Phillips, 1974, 조미은, 2008 재인용). 자살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미디어에 공개된 자살사건이 뒤따르는 자살 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고 있다(Gould, 2002; Stack, 2000). Stack(2000,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보도의 주요 요인으로는 유명인사와 사실기사 여부, 매체종류, 보도 노출범위 등이 있다고 한다. 유명인사와 실제 인물의 자살기사, TV보다 신문기사가, 다루는 언론매체 수가 많을수록 모방자살의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한다.

죽음관은 삶에서 형성되고, 그 죽음관이 개인의 삶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가지고 있을 때,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죽음의 장면을 보다 쉽게 인정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실제 생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Essa & Murray, 1994; Kastenbaum, 1977). Kastenbaum (1977)은 아동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가지고 있을 때,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죽음의 장면을 보다 쉽게 인정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실제 생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나,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한 집에 머물러 살뿐만 아니라 죽음이 삶의 현장 속에 녹아 있었던 것에 비해 현대의 핵가족화나 의료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죽음은 일상에서 벗어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Ferrel & Coyle, 2001).

더욱이 한국문화에서 죽음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왔다(배봉기, 2006; 이은봉, 2000). 아동들은 이미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죽음에 대한 논의나 적절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죽음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아동들에게 왜곡된 형태의 인식을 초래하여 지나친 공포를 갖거나 또는 지나친 환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Nelson, 1979).

Lockard(1986)은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 막연한 공포를 제거하고, 삶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교육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좋은 죽음관을 갖는 것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 증진과 정서적 안녕감 뿐 아니라 생명존중 태도와 죽음(자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진탁,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는 무척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아동과 죽음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Nagy(1948)의 연구를 시작으로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 형성의 발달과 죽음 대비 교육 및 직접적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을 위한 치료적 관점의 교육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 개념 발달에 관련된 연구(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김양남, 1993; 이준숙, 1993; 정은미, 1999; 박아청·정경숙, 2001; 정경숙 2001; 양진희 2006)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죽음대비교육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경주·황경혜·라정란·홍정아·박재순, 2006). 특히 외국의 경우 죽음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 1963년 미네소타 대학의 Robert Fulton 교수가 죽음학 강의를 개설하고, Elisabeth Kubler-Ross의 『죽음의 순간』(On Death and Dying, 1969)이 출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켜 교육과정 속에 죽음에 대한 교수단원이 활용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호주의 경우도 1970년경부터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죽음불안 해소를 위한 연구가 있다(남은영, 1998; 최은미, 2001; 양진희, 2007).

죽음의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관련된 연구들도 죽음의 개념이 연령과 발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거나(Smilansky, 1987; Kastenbaum & Aisenberg 1972; Nagy, 1948) 사회문화적인 이해양상에 따라서 달라진다(Smilansky, 1987)고 지적하고 있다. 5세 이전, 5~9세, 9~10세로 나누어 아동의 죽음인식이 다르다는 Nagy(1948)의 연구를 필두로 보존개념의 획득여부에 따라서 죽음개념의 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죽음개념의 경우 세 가지(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Speece & Brent, 1984), 네 가지(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또는 5가지(종국성, 필연성, 비가역성, 인과성, 고통) (Smilansky, 1987)등으로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한 개념뿐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환생, 부활 등 비유형적인 지속성(Noncorporeal Continuation)도 죽음개념으로 첨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peece & Brent, 1996). 이는 문화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각 문화마다 갖고 있는 내세관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는 주로 아동의 발달에 따른 죽음개념 획득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자살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요즘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직전인 아동기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죽음관 및 내세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히는 것은 아동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죽음 교육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실제 아동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경험하고 있는 죽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동의 개인적 경험, 죽음 교육 경험,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아동의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 실제 아동의 죽음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죽음인식 및 내세관은 어떠한가?

- 1.1.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2. 아동의 내세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죽음관련 경험은 어떠한가?

- 2.1. 아동의 죽음관련 생활경험은 어떠한가?
- 2.2. 아동의 죽음교육관련 경험은 어떠한가?
- 2.3. 아동의 매체를 통한 죽음관련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K초등학교 6학년 네 학급 91명(남 47명, 여 44명), L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27명(남 14명, 여 13명)으로 총 118명(남 61명, 여 57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10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11.6세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동은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을 모두 획득하고(권성자, 1984),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 경험이나 유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아동기 후기와 초기 청소년기가 혼재하는 시기로 죽음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대상

구 분	남	여	계
K 초등학교	47명	44명	91명
L 초등학교	14명	13명	27명
계	61명	57명	118명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죽음인식 및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아

<표 2> 설문지 구성

항 목	문항수	내 용
인구통계학적 변인	6문항	성별(1) · 연령(1) · 가족수(1), 가족형태(1), 종교 및 참여정도(2)
죽음인식	4문항	죽음인식(1), 죽음 이미지(1), 자살인식(2)
내세관	10문항	사후세계(2), 삶/죽음/사후 연관성(2), 환생/열반 인지(4), 신과의 연관성(2)
개인적 죽음 경험	11문항	애완동물죽음(2), 가족죽음(2), 지인죽음(2), 장례식참석(2), 주검목적(2), 죽음기억(1)
죽음 교육 경험	6문항	가족(2), 타인(2), 죽음교육(2)
매체 죽음 경험	5문항	기억나는 사건(2), 게임/상상 죽음(3)
계	42문항	

동의 죽음 인식, 내세관, 개인적 죽음 경험, 죽음 교육경험, 매체를 통한 죽음 경험 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표 2>). 이는 아동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 형성이 인지발달에 따르며 대중매체, 문화적 측면,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환경,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장연집, 1998)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각 설문 문항들은 각 하위 영역별로 아동의 죽음 인식은 권성자(1984), 김남주(1984), 김양남(1993)의 연구를, 내세관은 정은미(1999), Sagara-Rosemeyer & Davies(2007)의 연구, 개인적 죽음 경험은 정은미(1999), 박아청과 정경숙(2001)의 연구, 죽음 교육 경험은 최은미(2001) 그리고 매체 경험은 Wass(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44개의 항

목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세관 중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답하도록 한 것은 Sagara-Rosemeyer와 Davies(2007)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연구에서 그림을 그려 표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아동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쓰거나 그림을 그려 답변한 비수량적 자료의 분석유목과 분석기준은 관련 문헌 고찰 후 분석자간 토론을 거쳐 범주화하여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내용 분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두 차례의 분석자간 상호일치도 분석결과 각각 0.95와 0.9의 상호일치도가 측정되었다. 특히 아동이 감정을 표현한 답변의 경우 선행연구(김은영, 2004; 김정현, 2007)를 근거로 <표 3>과

<표 3> 감정 범주 분류

구 분	세 부 내 용
슬픔	불쌍, 서운, 쓸쓸, 허망, 허전, 우울, 안타깝다
싫음	반감, 거부, 냉담, 불편함, 믿기지 않다, 멍하다
불안/두려움	끔찍하다, 놀라다, 놀람, 걱정, 공포, 징그럽다
부끄러움/자책감	미안하다, 낮설다
분노	짜증남, 화가남
바람	아쉬움, 궁금함, 소망함
기쁨/좋음	좋다, 기쁘다

같이 유목화 하였다.

2. 연구절차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조사로 2008년 9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형식의 예비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을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 관련 용어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수정하고 일부 문항(게임 관련 문항 등)을 추가하였다. 설문 내용과 항목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007년 9월에는 K초등학교 네 학급, 10월에는 L초등학교 한 학급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을 실시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후에는 아동들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나쁜 기억을 떠올리거나 우울한 기분을 갖기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읽어 주었다. 이는 문학이 삶에 대한 여러 가치들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가치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Corr, 2004; 이성은, 200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요소로 문학을 사용한 것이다. 이 때 사용한 그림책은 『나는 기다립니다』(다비드 칼리 글, 세르즈 블로크 그림, 2007)

로 Gillespie와 Connor(Mercurio & McNamee, 2006 재인용)이 죽음교육의 그림책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되었다.

4. 설문지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과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이은혜, 1990). 경험의 유무나 인지 유무, 기억나는 사건과 같이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SPSS 13.0 Program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반면, 비수량적 자료는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범주화하여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각 서열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rho 상관관계 분석과 카이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죽음인식과 내세관

1) 죽음 인식

아동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표 4> 죽음에 대한 인식

N(%)

구 분	세 부 내 용	빈도(%)
부정적 정서	무서움(35), 죽기 싫음(6), 사고에 대한 걱정(5), 두려움(5), 슬픔(4), 기타 부정적 정서(8)	63(61.8)
긍정적 정서	기대(2), 호기심(2)	4(3.9)
삶	생명의 소중함(5), 삶을 성찰(3), 기타(1)	9(8.7)
죽음 또는 사후에 대한 기술	사후세계(9), 영혼(2), 환생(2), 기타(1)	14(13.6)
기타	느낌 없음(9), 기타(4)	13(12.0)
계		103(100)

<표 5> 죽음의 원인 N(%)

구분	세부내용	빈도(%)
사고	교통사고, 구급차	7(21.2)
살인	도둑, 칼, 총, 낫, 피	10(30.3)
자살	옥상, 절벽, 칼	11(33.3)
사형	교수대	2(6.1)
병/자연사	침대, 병원, 주사기	3(9.1)
계		33(100)

그림과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조사되었고, 자살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아동의 죽음인식은 무서움, 걱정, 두려움, 슬픔 등 부정적 정서가 61.8%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정서는 3.9%에 불과했다. 이외에 현재 삶을 떠올리거나(8.7%), 사후세계를 기술(13.6%)하기도 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림에서는 죽음 관련 요소들이 100여 가지 이상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특히 죽음의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난 답변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병이나 자연사(9%)보다는 자살(33.3%)과 살인(30.3%)을 포함한 사고사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자살의 경우 11명 중 10명의 아동이 높은 곳에서의 투신 자살을 묘사하고 있었다.

자살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정서가 53.7%가 높기는 했지만 다른 죽음과 차이가 없거나(34.5%),

긍정적인 것(5.5%) 등의 응답과 비교해 그 비율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표 6>.

2) 내세관

내세관과 관련해서 먼저 아동의 종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교(42.4%)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35.6%), 카톨릭(13.6%), 불교(8.5%)의 순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동(68명)의 종교 활동 참여도는 개신교의 예를 들면 ‘일요일예배에 참석한다.’ 정도인 보통(54.4%) 수준이 가장 많았다(<표 7>).

구체적인 아동의 내세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표 8>)에서 사후세계와 관련하여 인간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응답한 아동이 22.1%였던 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74.8 %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죽음이 후의 세계에 대해 다시 태어난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준 아동이 33.7%,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답한 아동이 41.4%로 선형적 세계관을 가진 유아가 보다 많았다.

삶과 죽음과 사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50%씩 같은 비율로 나왔다.

환생이나 열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열반의 경우 94.1%의 아동이 ‘알지 못한다’고 했고 ‘알고 있다’고 응답(5.9%)한 아동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 반면 환생의 경우 ‘모른다’고 한 아동이 56.6%로 다수를

<표 6> 자살에 대한 인식 N(%)

구분	세부내용	빈도(%)
부정적 정서	지옥(28),귀신/원한(8), 환생 못함(7), 슬퍼함(4), 소용없음(3),두려움(2), 후회(2), 기타(5)	59(53.7)
긍정적 정서	다시 태어남(3), 평안(2), 기타(1)	6(5.5)
일반 죽음과 유사	일반 죽음과 동일(31), 평범(5), 신은 자비(2), 기타(1)	38(34.5)
기타		7(6.3)
계		110(100)

<표 7> 아동의 종교 및 종교 활동 N(%)

구분	빈도(%)	구분	빈도(%)
<u>종교</u>	(N=118)	<u>종교 참여정도</u>	(N=68)
무교	50(42.4)	참여안함	3(4.4)
불교	10(8.5)	가끔	23(33.8)
개신교	42(35.6)	보통	37(54.4)
카톨릭	16(13.6)	자주	5(7.4)

차지했지만 43.6%의 아동이 알고 있었으며 그 개념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아동의 종교가 무엇인지와는 관계가 없었다.

신과 사후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72.9%(86명)의 아동이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카이검증 결과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 아동의 죽음관련 경험

아동이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죽음과 죽음에 대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교육경험, 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1) 아동의 죽음관련 생활경험

애완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은 56.8%였고 그 외에 함께 살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은 17.8%로 대부분 조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다. 이때의 느낌은 슬픔이라고 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주변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은 43.6%였고 역시 조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로 슬픔과 그리움 같은 애도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장례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35.6%였고 대부분 조부모의 장례식이었으며 슬픔과 그리움 같은 애도의 감정을 주로 느끼고 있었다. 실제 동물이나 사람의 주검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72.9%로 이 중 대다수인 86.2%가 길에서 사고로 죽어 있는 동물의 사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때 54.4%의 아동이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다.

2) 아동의 죽음 교육 경험

가족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16.5%에 불과했고, 그 대상은 부모님이 대부분이었다. 가족 외에 아동이 죽음에

<표 8> 아동의 내세관 N(%)

구분	빈도(%)	구분	빈도(%)
<u>사후세계</u>	(N=95)	<u>삶과 죽음과 사후 연관</u>	(N=116)
다른 존재로 남	32(33.7)	관계 있다	58(50)
다른 세상 감	39(41.1)	관계 없다	58(50)
끝, 무존재	21(22.1)		
기타	3(3.2)		
<u>환생개념 인지</u>	(N=117)	<u>환생 지식</u>	(N=60)
알고 있다	51(43.6)	정확	54(1)
모른다	66(56.5)	부정확	6(2.8)
<u>열반개념 인지</u>	(N=118)	<u>죽음과 신과의 연관성</u>	(N=118)
알고 있다	7(5.9)	관계 있다	32(27.1)
모른다	111(94.1)	관계 없다	86(72.9)

<표 9> 아동의 죽음관련 생활경험

N(%)

구분	빈도(%)	구분	빈도(%)
<u>애완동물의 죽음</u>		<u>애완동물죽음 정서</u>	
	(N=118)		(N=94)
경험 있다	67(56.8)	슬픔	55(47.9)
경험 없다	51(43.2)	불안/두려움싫음	6(6.4)
		자책/부끄럼	13(13.9)
		기타	7(8.6)
			13(13.8)
<u>가족의 죽음</u>		<u>가족죽음 정서</u>	
	(N=118)		(N=28)
경험 있다	21(17.8)	슬픔	15(53.7)
경험 없다	97(82.2)	불안/두려움싫음	5(17.9)
		기타	4(15.6)
			4(14.3)
<u>지인의 죽음</u>		<u>지인 죽음 정서</u>	
	(N=117)		(N=50)
경험 있다	42(43.6)	슬픔/그리움	23(46.0)
경험 없다	75(64.1)	불안/두려움싫음	7(14.0)
		감정 없음	2(4.8)
		기타	15(28.5)
			3(5.3)
<u>장례식 참석경험</u>		<u>장례식 참석경험 정서</u>	
	(N=118)		(N=46)
경험 있다	42(35.6)	슬픔/그리움	22(31.4)
경험 없다	76(64.4)	불안/두려움싫음	3(7.0)
		감정 없음	2(63.0)
		기타(실감)	13(26.3)
			6(13.0)
<u>주검 목격</u>		<u>주검 목격 정서</u>	
	(N=117)		(N=114)
경험 있다	86(72.9)	슬픔/그리움	37(31.4)
경험 없다	32(26.3)	불안/두려움싫음	62(45.0)
		감정 없음	5(10.0)
		기타(실감)	6(2.9)
			4(0.0)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도 15.3%였고 그 대상도 주로 또래 친구였다. 아동이 죽음 교육을 받은 경험은 22%에 불과했고 주로 교회에서 목회자 등에게 받은 것이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주로 신앙에 따른 천국·지옥 같은 사후 세계와 관련되었다고 하였다.

3) 매체를 통한 간접적 죽음경험

아동들에게 어떤 죽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 결과 연예인 자살 및 사망(33.7%)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영화(19.8%), 게임(18.8%)으로 나타났다(<표 11>).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죽음이 전체의 64.4%에 달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인상적으로 기억한다고 한 아동은 소수응답으로 2.9%(3명)에 불과했다.

매체를 통한 경험 중 죽음 관련 사건 사고 일

<표 10> 아동의 죽음교육 경험

N(%)

구분	빈도(%)	구분	빈도(%)
<u>가족과의 경험</u> (N=118)		<u>대상 가족</u> (N=22)	
경험 있다	23(16.5)	부모님	12(54.5)
경험 없다	95(83.5)	형제	3(17.8)
		할머니	2(9.1)
		가족	4(18,1)
		기타	1(4.5)
<u>친구나 지인 경험</u> (N=118)		<u>대상 친구나 지인</u> (N=11)	
경험 있다	18(15.3)	친구	10(90.9)
경험 없다	100(84.7)	기타	1(9.1)
<u>죽음 교육경험</u> (N=118)		<u>교육한 대상</u> (N=23)	
경험 있다	26(22.0)	교회관계자	14(60.9)
경험 없다	92(78.0)	가족	2(8.7)
		미디어	2(13.0)
		선생님	3(4.3)
		기타	2(8.7)

<표 11> 기억에 남는 죽음

N(%)

구 분	빈도(%)
게임	19(18.8)
연예인 자살 및 사망	34(33.7)
드라마/영화	20(19.8)
만화	5(4.9)
책	5(4.9)
TV & 뉴스	11(10.9)
기타	7(6.9)
계	101(100)

<표 12> 기억에 남는 사건들

N(%)

구 분	빈도(%)
동남아 쓰나미 희생자	16(4.8)
이라크 전쟁 전사자	17(5.1)
중국대지진 희생자	58(17.3)
미국 9.11 테러 희생자	34(10.1)
아프가니스탄 납치테러 희생자	36(10.7)
유괴-납치 희생자 혜진-예슬	87(26.0)
유명연예인의 죽음	83(24.8)
기타	4(1.2)
계	335(100)

<표 13> 가상의 죽음경험(게임·상상 등)

N(%)

성별\경험 유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빈도 (%)
남아	16명	45명	61명
여아	37명	19명	56명
계	53(45.3)	64(54.7)	117(100)

곱 가지를 선정하여 기억에 남는 순서대로 3개 씩 선정하게 하여 다중응답 처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혜진-예슬 초등학생 납치 희생자 사건(26.8%), 유명연예인의 죽음(24.8%), 중국 대지진(17.3%)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은 불쌍하다(26.8%), 놀라고 황당하다(20.5%), 무섭다(17.9%), 그저 그렇다(8.9%), 끔찍하고 잔인하다(4.5%) 등의 순이었다.

아동의 게임이나 상상과 같은 가상의 죽음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 결과 경험이 있는 아동이 54.7%(64명)로 다소 많았는데 이중 67.2%(45명)

는 남아있다. 반면에 가상의 죽음 경험이 없는 경우는 여아(70%)가 더 많았다(<표 13>).

이와 같은 가상의 죽음 경험의 구체적인 예로 64명 중 57명인 89%의 아동이 게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중 과반수(54.3%)의 아동이 ‘서든 어택(Sudden Attack)’이라는 특정 RPG(Role-Playing Game) 슈팅게임을 언급하였다.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 이유로는 게임의 규칙이 그렇기 때문(58.1%)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그때의 기분은 통쾌하고 신난다는 긍정적 반응(27.3%)이 많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인식과 내세관 그리고 이와 관련이 있는 아동들의 실제 죽음경험을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죽음인식과 내세관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정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부정적 감정은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애도의 감정이 아닌 주로 두려움, 불안과 같은 정서였다. 이러한 특징은 아동이 죽음 관련 요소 중 죽음의 원인을 일반적인 자연사가 아닌 자살이나 살인을 더 많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아동이 자연사보다 살인이나 자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동이 죽음의 원인 중 자살을 언급 시 높은 곳에서 투신한 장면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에서 자살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자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죽음과 동일하게 여기는 인식도 적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찾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까지 있었고 애도하는 태도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망자에 대한 예의라는 미명 아래 자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거나, 자살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자살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살보도 메시지가 우울경향성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논문에서 자살에 대한 주변인의 애도반응 없이 단순자살보도 메시지를 보았을 때 우울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현명호, 2006)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아동기에 형성된 그릇된 죽음관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아동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이나 자살의 부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내세관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아동 대부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중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해 다시 태어난다는 순환적 세계관과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직선적 세계관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과 죽음과 사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신과 사후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원래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인 환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아동이 인지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일부 아동의 경우 환생을 기독교의 부활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들이 환생에 대한 지식을 여러 매체를 통하

여 알게 되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종교성을 넘어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상 아동들의 내세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종교나 종교 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내세관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죽음개념 형성에 차이가 있다는 김남주(1984)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Sagara-Rosemeyer와 Davies(200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의 종교상도 단순히 한 가지 종교의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유교적, 민속 신앙적 특성이 다른 종교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죽음관련 경험

아동의 죽음관련 생활경험에 있어서 애완동물의 죽음이나 거리에서 우연히 동물들의 사체를 목격하는 경험은 비교적 많은 반면 실제 가족이나 지인 등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한 경험은 적었다. 이는 아동들의 연령상 죽음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이유도 있지만 아동에게 죽음을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배봉기, 2006; 이은봉, 2000).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아동들에게 올바른 죽음개념 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오승혜, 2001)는 것이다.

아동들이 비록 경험한 사례는 적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자연스러운 애도반응을 보인 반면 대다수가 경험한 동물의 사체와 마주친 경험에 대해서는 사체의 처참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며 두렵고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죽음교육과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조차도 죽음 교육은 커녕 진지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Segal(1984, 오승혜, 2001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있을 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죄책감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분노를 내면화하거나 분출시키며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며 정신적 위안을 찾기 위해 또래나 형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다는 결과에 비추어 성인들의 관심과 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죽음교육이라고 경험한 것도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의 경험이 주를 이루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순한 이분법적 내용만 기억하는 아동도 있었지만 생명과 자살에 대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이나 학교가 아닌 종교기관을 통한 체계적 죽음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으로 떠올린 것이 연예인의 죽음이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연예인 자살과 그로 인한 각종 매체를 통한 보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자들이 설문을 실시한 시기인 2008년 9월과 10월은 텔런트 안재환과 최진실의 연이은 자살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시점이었다. 실제 9월에 설문을 실시한 K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안재환의 죽음을 거론한 반면 10월에 설문을 실시한 L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최진실의 자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아동들이 최근에 일어난 죽음관련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각종 죽음 관련 사건들에 대한 문항 선택에서 보면 아동 납치 살해 사건을 가장 높게 지목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동들이 자신과 같은 또래 아동들이 희생자가 된 사건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이들 사건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연예인의 죽음에는 ‘놀랐다’는 반응이 많지만 아동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대상이 될까봐 두렵고 무섭다’는 반응 뿐 아니라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와 같이 자신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들이 살해당한 상태(예 : ‘토막토막 내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더욱 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태도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보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Stack(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게임이나 상상과 같은 가상의 죽음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 결과 과반수의 아동이 게임을 통한 살인 경험을 해보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 과반수의 아동이 최소 15세, 기본 18세 이상이 이용가능한 게임인 ‘서든어택’의 사용경험을 언급하였다, 그와 함께 게임규칙이고 재미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 속 죽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동들의 이러한 태도로 우려가 되지만 무엇보다 연령제한이 있는 게임을 초등학교생들이 손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죽음에서 TV 드라마나 영화 속 죽음을 언급한 아동들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생들이 시청하거나 관람할 수 없는 영화(예 : 타짜)를 그 예로 들기도 해서 각종 매체에서의 연령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부정적인 죽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동의 죽음 경험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죽음과 관련하여 경험 할 수 있는 생활경험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연히 접하게 되는 동물의 주검이나 선정적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는 자살이나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한 죽음이 아동의 죽음 경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을 위한 죽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만한 각종 사망 사고는 물론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가족의 죽음 또는 기르던 애완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도 부모나 교사를 비롯한 가까운 성인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화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셋째, 아동들도 쉽게 접하는 각종 미디어의 사망사건 보도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또래 아동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욱 크기에 보도에 있어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자 오락적 요소인 만 15세, 또는 만 18세 이상 이용가능한 폭력적인 게임을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동들이 보다 올바른 죽음관을 가지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이 죽음 교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보편적인 죽음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기존의 죽음관련 연구가 아동의 발달에 따른 어린 아동들의 죽음개념 획득이나 청소년의 자살관련 요인 연구에 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직전인 아동기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죽음관 및 내세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사회적 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죽음 교육 계획과 이후

죽음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특정연령과 일부지역 아동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연령,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인해 설문 응답에 대해 개별아동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이 실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개별 아동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나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매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제협력개발기구(2008). OECD 건강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부 <http://stat.mw.go.kr>

권성자(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주(1984). 아동의 죽음 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균(1998). 제1부 형사학 분야 : 범죄보도 실태와 선정성에 관한 내용분석 - 주요 4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133-156.

김양남(1993). 아동의 죽음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 사람, 동물, 식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4). 국어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현(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 고빈도 감정 어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은영(1998). 아동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메디컬투데이(2009). 연예인부터 의사 등 전문직까지 자살 '일파만파'. 4월 30일 보도자료 <http://www.mdtoday.co.kr>

문화방송(2009). 사이코패스 범죄, 대책은 없나? 2월 4일 방송 <http://imnews.imbc.com>

박아청·정경숙(2001).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심리연구, 15(4), 177-196.

배봉기(2006).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서울 : 한국학술정보원.

양진희(2006).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7(3), 1-27.

양진희(2007).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개념 교육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9-74.

연합뉴스(2008) 다시 고개든 지구촌 테러공포. 11월 28일 보도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2009). 동반자살한 A씨 쪽지함 들여다보니. 4월 24일 보도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오승혜(2001). 초등학교 아동의 죽음개념과 죽음불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진탁(2008).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서울 : 세종서점.

이경주·황경혜·라정란·홍정아·박재순(2006).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 호스피스 교육연구소지, 10, 23-39.

이성은(2003). 이동문학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이영숙(2006).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죽음준비교육의 접근 가능성.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봉(2000).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은혜(1990). 이동연구방법. 서울 : 교문사.

이준숙(1993). 아동의 죽음 하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연집(1998). 아동기 죽음개념의 발달과 충격완화를 위한 비탄치료의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4, 127-147.

전영란(2007). 학령기 아동의 죽음 인식에 관한 탐색

- 적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경숙(2001).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미(1999). 종교와 죽음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 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미은(2008). 자살보도지침 권고안 시행 전후의 국내 자살보도연구(2008. 8~2005. 7).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09). 재난영화처럼... “한반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4월 27일 보도자료. <http://news.chosun.com>.
- 최용준(2003). 방송프로그램의 사회 문화적 역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서유형동향분석.
- 최은미(2001). 아동의 죽음개념과 죽음대비교육의 접근가능성.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명호(2006). 우울경향성과 자살보도메시지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단순자살동기보도와 주변인의 애도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ckingham, D. (2000).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전 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정현선 역, 서울 : 우리 교육.
- Corr, C. A. (2004). Bereavement, grief and mourning in death related literature for children *Omega : The Journal of Death and Dying*, 48, 337-363.
- Essa, E. I., & Murray. C. I. (1994).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with death. *Young Children*, 5, 74-81.
- Ferrel B. R., & Coyle N. (2001). *Textbook of Palliative Nursing*,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Gould, M. S. (2001). Suicide and the media. In H. Hendin & J. J. Mann(Eds.), *Suicide prevention : Clinical and scientific aspects*(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pp.200-224). New York :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Kastenbaum, R. (1977).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Deat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 225.
- Kastenbaum, R., & Aisenberg. R. (1972). The psychology of death,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4-26.
- Ku"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The MacMillan Company.
- Lockard, B. E. (1986). "How to Deal with the Subject of Death with students in Grade K-12"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Sout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mphis. 1-33.
- Mercurio, M., & McNamee, A. (2006). Healing words, healing hearts : using children's literature to cope with the loss of a pet. *Childhood Education Spring*, 82(3), 153-160.
- Nagy, M. (1948). The child's theories concerning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73, 3-27.
- Nelson, M. (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34, 137-139.
- Sagara-Rosemeyer, M., & Davies, B. (2007). The Integration of Religious Traditions in Japanese Children's View of Death and Afterlife. *Death Studies*, 31, 223-247.
- Smilansky, S. (1987). *On death :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NY : Peter Lang.
- Speece, M. W., & Brent, S. B.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 A review of three components of a death concept. *Child Development*, 55, 1671-1686.
- Speece, M. W., & Brent, S. B. (199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In A. C. Charles & M.C. Donna(Eds.), *Death and Breavement*(pp.29-50).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 Stack S. (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 Strasburger, V. C., & Wilson, B. J. (2002). *Children, Adolescents and Media*.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김유정 · 조수선 옮김,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Wass, H. (1983). Death Education in the Home and at School. *Eric NO. ED233253, Apr.* 1-17.
- 관련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 2009년 4월 30일 투고, 2009년 7월 4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